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되어 하나 되어 사는 삶이다.
2. 생각에서 잊어버린 자는 감각이 없는 자다.
3.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과 똑같다.
4.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차이다. 생각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는 산 시체다.
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대화하며 사는 행복을 모르는 자는 깨닫지 못하여 가치를 잃고 뺏기게 된다. 뺏기고 갇은 고통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받을 때 그제야 깨닫게 돼도, 다시 찾고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6. 받고 누릴 때, 가치를 절실히 깨닫고 뺏기지 말아라.
7. 네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8. 기도하여 영계에서 깊이 깨닫고 봐야 된다. 육계에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깊은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9. 하나님과 성령님의 것은 영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령한 혼과 영으로 보고, 육으로 깨닫게 해야 안다.

10. 성령님은 깨닫도록 보이시고 감동시켜 주신다. 깨달은 자는 눈을 뜬 자다. 보이니, 행하게 되느니라.
11. 사람이 개발의 능력이 없으면, 보통으로 개발한 만큼만 쓰며 살게 된다. 무엇이든지 해 놓은 만큼만 누리게 되는 것이다.
12. 행한 만큼 누리게 되느니라.
13. 할 때 해야 생각도 잘 나고, 일도 기술을 익혀 쉽게 하게 되나니, 때가 지나면 쉽게 되지 않느니라.